

# 이란, 트럼프 위협에 인·러 손잡고 유전 개발

## IDRO, 수상게르드 유전 공동 개발 위해 ONGC비데시와 MOU 체결

이란 유전 개발에 인도와 러시아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란 IRNA 통신은 9일 이란산업발전개발공사(IDRO)가 인도, 러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전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DRO는 이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국영 투자회사다.

나스롤라 자라이 IDRO대표는 이란 남서부에 위치한 수상게르드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도 기업인 'ONGC비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라이 대표는 또 러시아 기업 '자루베즈 네프트'와도 같은 내용의 MOU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게르드 유전은 개발이 완료되면 하

루 3만배럴의 원유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유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과기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이란은 미국의 영향력이 적은 인도,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양새다. 이란과 6개 중재국(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와 독일)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서방의 이란 제재 해제에 대한 합의를 담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채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다.

이현수 기자 hslee@

# 日, 재생에너지 발전 증서 거래시장 만든다

## 비화석가치거래시장서 전기 소매업자 1kW당 1.3~4엔에 인증서 구입 가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임을 인증하는 증서 거래 시장이 일본에 새롭게 생긴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거래되도록 해 화석연료를 탈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6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5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임을 인증하는 비화석증서를 거래하는 '비화석가치거래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 증서는 '저탄소투자촉진기구(GIO)'가 발행한다.

GIO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법인체다. 이 비화석가치거래시장에서 전기 소매업자는 1kW당 1.3~4엔(약 13~40원)에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증서를 구입한 전기소매사업자는 같은 분량만큼의 전기를 '비화석' 전기로 팔

수 있다. 현재 일본 내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석탄 화력으로 발전된 전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가 구분되지 않고 거래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비화석 증서 거래 시장을 만들어 증서를 사고팔 수 있게 해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의 양과 성과 여부는 증서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비영리조직인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지난 2일 2일부터 증서가 붙은 전기의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DP는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환경 정보를 분석하고 기업 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기관이다.

현재 일본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가 10~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구입제도(FTT)를 실시하고 있다.

전력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과금 형태 로 전기요금으로 가산돼 전기 이용자가 지불하며,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과금도 증가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증서 발행으로 모이는 자금을 이용해 FIT 실행으로 인해 오르는 전기이용자의 부과금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증서의 대상이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만 이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화석증서와 시장이 원전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예지 인턴기자 kimyj@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대화 원하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문타운시 애플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 그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시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IEA, "2020년 이후 원유 부족 사태 올 수도"

### 세계 수요 증가로 공급 측면 대응 절실히 필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부터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IEA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가 원유 생산을 늘리면서 2020년까지 세계 원유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까지 미국의 생산량 증가는

하루 37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EA는 2020년 이후에는 원유 탐사와 생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생산 여력이 부족해지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IEA는 "세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생산 계획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말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180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두 차례 연장됐고 올해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현수 기자

English Study

ENGLISH 영국 미국 말문을 여는 스토리로 배우는 영어회화!

Lesson 46 Party (8)

파티에서 여기 저기 진행되는 대화들 - 스승과 어린제자의 대화

A: Alex, is there something wrong? (알렉스, 무슨 일 있나?)  
 B: I have to move with my mother to Los Angeles. (저 엄마랑 LA로 이사 가야 하네요.)  
 A: Your father told me. 아빠가 말씀하시더라. (아빠가 말씀하시더라.)  
 It's gonna be hard on everyone.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될 거야.)  
 B: I don't wanna go. I wanna stay here. (전 가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A: I'm sorry. You must be very upset. (마음이 아프구나. 너 진짜 속상하겠네.)  
 Hey. Got a little surprise for you to cheer you up. (너 기운나게 해 줄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B: What kind of surprise? (어떤 건데요?)  
 A: Something my brother gave me. (내 동생이 준 거야.)  
 B: What is it? (뭔데요?)  
 A: It's a four-leaf clover. (네 잎 클로버야.)  
 It's supposed to bring you good luck. (행운을 가져 다 준대.)  
 I don't know if it's true but I hope it brings you good luck.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길 바래.)

[Key Point] \* 누가 봐도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한테만 써야지, 모호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Are you okay?를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조심성 없이 사용해서 안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신이 때면 그런 말을 들어서 익숙해서인데, 그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문제로 늘 어색하고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Is there something wrong? / Is there a problem? / Is everything okay? / Are you okay?

[주요 표현] \* Is there something wrong?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사려 깊게 물어보는 표현.)  
 You must be very upset. (mus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상대의 상황, 기분에 공감!)  
 You must be tired. It must be tough for you.  
 Hey. Got a little surprise for you to cheer you up. (선물을 건네기 직전 멘트. 이외에, This is for you.. I want you to have this. 등)  
 What kind of surprise?  
 (surprise는 예상치 못한 모든 것들, 선물, 파티, 방문, 전화)  
 What is it?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개봉 직전 멘트. What could this be?  
 What did you get me? 등)

(자료 제공 : 테스트와이즈 시사영어학원 문영미 POWER SPEAKING (www.sisaspeaking.com))

2018 일본은 지금...

◆도요타 등 대기업 11개 사가 손잡고 '일본 수소스테이션 네트워크 합동회사' 설립= 도요타 등 일본 내 대기업 11곳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스테이션의 정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스마트 재팬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인프라 분야 대기업 11곳이 연료전지차(FCEV) 수소스테이션 본격 정비를 위한 '일본 수소스테이션 네트워크 합동회사(JHyM 제이하이엠)'를 설립했다. 합동회사 설립에는 도요타와 닛산자동차, 혼다기연공업, JXTG에너지, 이데미쓰화산, 이와타니산업, 도요가스, 도호가스, 니혼에어·리퀴드, 도요타통상,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참여한다. 합동회사인 제이하이엠은 수소스테이션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우선 구축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보급 확대, 수소스테이션 사업 자립화, 심층적 수소스테이션 정비 등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이하이엠은 '수소·연료전지전략협의회의 로드맵인 '2020년 수소스테이션 160여 곳 정비, 수소연료전지차 4만여 대 보급' 계획에 입각해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80개의 수소스테이션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수소스테이션 정비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참여기업도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 분야에서는 인프라 사업자들에게 수소스테이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설비의 정비 및 운영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소스테이션의 비용 절감과 규제 검토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로드맵 목표 실현에 공헌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제이하이엠은 수소스테이션의 영업일수 확대 등 수소연료전지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수소 인프라 업체들의 모임인 '수소공급이용기술협회(HySUT)'와 손잡고 수소스테이션의 이용편의 증대에도 나설 복안이다.

◆도쿄도(都),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수소로 에너지 공급한다= 도쿄도가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수소로 에너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쿄가스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기업과 기본협정도 체결했다. 스마트재팬에 따르면 도쿄도는 도쿄가스와 자회사인 하루미 에코에너지, JXTG에너지, 도시바, 도시바에너지 시스템즈, 파나소닉 등과 손잡고 '선수촌 지구 에너지 사업'의 기본협정을 맺었다. 이 사업은 도쿄도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에너지 정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은 사업의 지역용·차량용 수소공급사업에 관한 기본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쿄도가 공모형 제안 방식으로 실시한 사업 모집공고에는 도쿄가스를 중심으로 한 기업그룹이 응모해 2017년 9월 사업예정자로 선정됐다. 협정 체결 후 민간 기업 6곳은 도쿄도와 제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도쿄가스는 사업자 구성 기업 간 업무조정을 맡게 된다. 하루미 에코에너지는 수소 파이프라인을 정비해 선수촌지구에 수소를 공급한다. JXTG에너지는 수소스테이션을 정비해 차량에 수소공급을 실시한다. 도시바, 도시바에너지 시스템즈, 파나소닉 등 3곳은 순수 소형연료전지 개발에

힘을 보낼 예정이다.

◆라쿠텐, 이동통신사업 진출 위해 도쿄전력 철탑 기지국으로 활용= 일본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라쿠텐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 도쿄전력홀딩스의 철탑과 전주를 통신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산케이비즈에 따르면 라쿠텐은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 도쿄전력과 손잡고 철탑과 전주 등을 기지국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도쿄전력과 제휴·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극복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쿄전력홀딩스의 송배전 자회사인 도쿄전력 파워그리드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을 위한 철탑 등 설비를 대어하고 있다. 라쿠텐은 이를 이용해 철탑 등 기지국 500~1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지국 신설에는 1개 곳당 약 2000만~3000만엔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라쿠텐 측은 도쿄전력의 설비를 활용할 경우 기지국 설치비용을 최대 300억엔 정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쿄전력 외 다른 전력회사와의 제휴도 검토하고 있다. 라쿠텐은 오는 2019년에 NTT도코모 등 이동통신사 3개 대기업을 뒤잇는 제4의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동반되는 설비투자계획으로 최대 6000억엔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업계에선 '설비 투자액이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라쿠텐의 마키타나 히로시 회장 겸 사장은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는 다른 곳에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